

외국계 L사 비즈니스 스킬 특강

비즈니스 협상, 이메일, 화상PT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스킬 특강!

교육일정: 2022년 4월 부터 매월 1회씩 진행



HR컨설팅본부
Liam(이건희) 주임 컨설턴트

교육과정의 기본 사항을 소개한다면...

해당 교육은 L사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현업에서 영어로 업무를 진행 및 처리하시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한 비즈니스 스킬 특강 과정입니다. 매달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 스킬 주제들을 통해 어떤 직무에서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하였고, 대규모 과정인 만큼 매번 100명 이상의 임직원분들께서 비대면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1시간가량의 콤팩트한 특강이기 때문에 과정 종료 후에도 쉽게 내용을 상기하실 수 있도록 비즈니스 스킬 표현 모음집을 제공 드렸습니다.

준비과정에서 특별하게 Focus를 맞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과정 소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1시간 가량의 콤팩트한 특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제외하고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과 특강 이후에 다시 내용을 상기할 수 있는 자료 제공에 가장 집중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용적인 내용을 위주로 담기 위해 과정 설계 단계에서 특강을 진행해 주실 강사분과 교안 관련 논의를 꽤 깊게 진행 하였습니다.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교안을 기획하고 내용 전달 부분이 가장 Focus를 맞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 교육의 특징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특강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비즈니스 스킬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스킬 특강하면 기본적으로 이메일, 프레젠테이션, 미팅 등을 생각하십니다. 물론 기본적인 비즈니스 스킬 과정도 진행해 오고 있지만 내부 R&D를 통해서 고객사의 비즈니스 스킬 니즈에 맞게 구체화하여 고객사 맞춤형 비즈니스 스킬 특강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화상회의록 작성, 데이터 리딩, 협상 등 L

SIMULATION

Team 1:
Supports return to office

Team 2:
Believes work flexibility is needed

Q1. What are some arguments for & against the return to the office?
Q2. Which side are you on?
*** Any solutions / compromises?**

4월 Negotiation 교안 중 실제 Simulation

사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진행해 온 것이 특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중에 기억에 남는 학습자나 관련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4월에 진행했던 Negotiation 표현 정복 특강을 담당해 주신 강사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100명이 넘는 특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비대면으로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교육 담당자로서 아무래도 교육을 전달하는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야 할 내용이 많고, 대규모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호작용의 형태이기보다는 One-way 방식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특강을 담당해 주시기로 하신 순간부터 너무나 열정적으로 과정 준비를 함께 해 주셨고, 단순히 전달 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과정의 구조적인 형태까지 고려해 주시면서 과정을 진행해 주셨던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에너지로 특강을 완벽하고 짜임새 있게 진행해 주셔서 교육 담당자로서 너무나 감사했던 경험입니다.

가장 좋은 영어학습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올해 개봉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나온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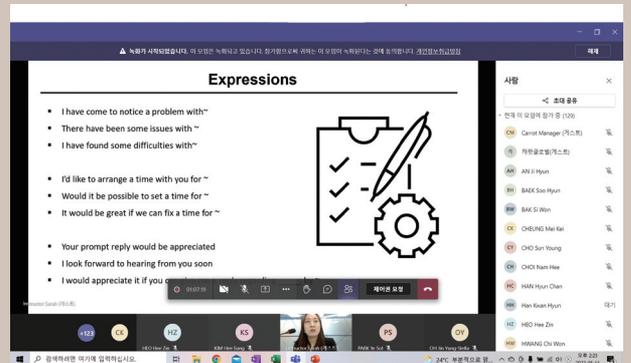
“수학을 잘하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아 이거 문제가 참 어렵구나, 내일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구나 하는 여유로운 마음. 그런 게 수학적 용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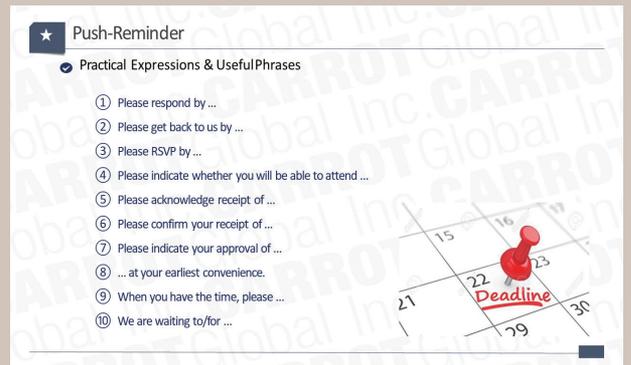
영어 학습에도 이러한 여유로운 언어적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다양한 언어 학습 앱부터 유튜브까지 매우 퀄리티 높은 다양한 콘텐츠부터 방법론까지 있더라고요. 어떠한 영어 학습 재료와 방법을 정하든 상관없이 담담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란 것이 비약적으로 늘리기도 어렵고 단기간의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고 꾸준히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담당자로서의 보람과 포부를 말해주세요~

교육담당자로서의 보람은 교육을 받는 분들의 성장을 볼 수 있을 때! 라고 말하면 가장 좋겠지만 교육을 듣는 분들의 성장만큼이나 제 스스로의 성장이 보일 때 저는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반복되는 교육의 경우, 이를 운영하면서 해당 교육을 깊이 파헤쳐서 개선점을 찾거나 더 나은 방향이 보일 때 보람을 느낍니다.



5월 Practical E-mail Writing 특강 진행 장면



5월 특강 후 참여자들에게 제공되었던 표현 모음집



6월 특강 효과적인 화상 프레젠테이션 특강 진행 장면

이러한 저의 이기심이 자연스럽게 기업 교육을 위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포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